



# 언어, 평등과 관용을 실현하는 도구 돼야

《섹시즘 Sexism 남자들에 갇힌 여자》 정해경 지음 | 휴머니스트 | 374쪽 | 값 15,000원



《섹시즘 Sexism - 남자들에 갇힌 여자》는 비교적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여성이 언어에 의해 차별받는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의 주체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인간은 언어를 수단으로 여성을 차별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특히 저자 정해경 씨(37)는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 사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남성의 말에 갇혀 지내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언어학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경험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정씨가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유학할 때였다. 버스 안에서 폴란드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엿들을 기회가 있었다. 정씨가 폴란드어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그들의 대화 내용은 뜻밖이었다.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중년신사들이나 그녀와 같은 여성들까지 그녀를 ‘노란 계집애’라고 지칭하며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적 비하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단지 폴란드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젠트맨으로 불리는 유럽 남성들은 동양여자에게 매우 친절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속내를 보니 오히려 동양여성이라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남성들에 의해 보호되는 듯하지만 그 보호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가 숨어 있었던 셈이다.

“독일의 나치즘이나 미국의 인종차별은 그 문제가 명확하고 또한 해결방법 역시 구체적이죠. 이미 많은 사람이 이 문제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인식도 깨어 있어요. 하지만 언어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스며 들어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처음 이 책을 준비했을 때 정씨가 계획한 것은 문고본 정도였다. 하지만 정작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자 단행본 분량을 훌쩍 넘어 버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저속한 방식으로 언어 속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평등이 드러나는 방식도 여러 가지였다.

“책에 담지 못한 게 또 1/3 정도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외화의 더빙(자막번역)이나 서적의 번역 문젠데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는 존칭이 없는데 외화를 보면 여성은 하나같이 남성들에게 존칭을 써요. 남자의 말투는 그렇게 남자다울 수 없고 여자는 또 그렇게

여성스러울 수 없죠.”

남성은 능동적·독립적·도구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의존적·비효율적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교육되는 것이다.

“지식인이나 예술가, 심지어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막상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적일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당혹스러워하고 실망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즉 말이 여전히 남성중심적(가부장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어떤 새롭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심코 쓰는 말 그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다. 정씨는 우선 가장 일상적이면서 권력적 속성을 지닌 미디어의 언어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소위 ‘법식’을 떨어 주위를 환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차별적인 말에 민감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언어의 문제는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정씨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어린이들,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삶, 즉 말이 여성과 소수의 삶을 배제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평등과 관용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